

제183호

발행인: 신현규
발행일: 2014.10.15



발전노동자

- ☐ 민주노조 사수
-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 임금체계개악 저지
- ☐ 성과연봉제 저지
- ☐ 해고자 원직복직

사라진 통상임금, 2014년 남부노조 임금협약(안)...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의 임금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를 따르더라도, 최소한 2014년 1월 이후의 임금은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통상임금 반영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기업별노조들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014년도 임금협상(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전회사 최초로 체결된 남부의 2014년 임금협약(안)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되어 있으며, 회사와 협의과정에서도 회사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이번 남부의 임금협약(안)은 노동조합이 회사의 임금체불을 합의해 준 꼴이다.

발전노조가 주도하여 진행하였던 통상임금 청구소송과는 별개이다.

2014년 예산편성지침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인상을 위한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하였고, 각 발전5개사도 예산을 수십억씩 편성하고 있다. 올해 통상임금 반영은 발전노조가 주도하여 진행하였던 통상임금소송과는 다른 얘기가 되었다. 그것은 정부와 법원이 신의척이라는 꿈수로 분할한 결과물이다. 최악의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것은 패소하여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래에 대한 통상임금 확대 반영은 법원과 정부도 보장한 것이 된다.

그런데 남부의 2014년 임금협약

통상임금 소송의 진원지 GM 2014년 임금합의 내용 (54.7% 찬성으로 가결)

- ◆ 통상임금 범위 전면 확대
- ◆ 기본금(6만3천원)인상
- ◆ 성과급(400만원), 격려금(650만원) 등을 포함 16개 항목
- ◆ 기타 : 설, 추석 귀성여비 증액 (60만원 → 70만원)
35년 장기 근속격려금 금 5돈 지급
배우자 종합검진 100% 지원 등...
- [단협] 하계휴가시 통상임금 50% 지급
- [단협] 금3~돈/근속10, 15년, 금5돈 및 국내 3박4일 여행(2인)
/근속20년, 금5돈/근속25년, 30년 지급

(안)은 통상임금 확대를 포기한 것이며, 임금체계 개편(통상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악의 시작일 뿐이다. 따라서 임금인상 1.7%(승호 포함) 같은 것은 아예 의미가 없다. 통상임금이 확대 적용 될 경우 교대근무자는 일인당 평균 연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인상된다. 한해 임금인상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이다. 게다가 금번 단협에는 가짜 정상화 이행내용까지도 일부 포함하고 있고, 그 이행과정에서 약속했던 달콤한 사탕발림은 결국 텅빈 공약이었다.

국회 산통위, 발전노조 차별/탄압 항상 지켜보겠다...

국회 '산통위 위원 14명' 당진화력 방문하여 한 목소리로 회사 질타

동서발전은 발전노조 파괴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그 중심으로 여겨지는 사업소가 '당진화력'이다. 10월 8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당진화력을 방문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정감사를 위한 사전 현장 방문의 성격으로, 당일 의원들의 발언은 의미 있었다.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노위 소속때부터 발전노조 차별과 파괴 작업을 폭로하고 『발전노조 파괴백서』를 공동 출판하였다. 아직도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안 된다. 항상 주시하겠다'고 하였고, 오영식 의원과 김제남 의원도 '발전노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수도권 특정사업소에 발전노조원들을 발령 내지 않고, 승진·인사에서 차별을 한 상황이 포착된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장주옥 동서발전사장에게 직접 지시하였다. 이날 방문을 같이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의원들이 '노조 차별은 절대 있어서 안된다'라면서 한목소리로 회사에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당진화력 내의 회사노조 사무실의 규모와 시설이 알려지면서, 노조사무실 제공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 동서 발전은 인사 관련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본사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특별 분양 전매 비리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부발전/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회사들도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에 지배개입하고 있다. 최근 발전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팀장들이 면담을 하여 압력을 가하는 사건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전노조는 부당·불법 행위자들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화 소개] 블랙딜

7개국 민영화 리얼 탐방기!

민영화,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1980년대 국가재정적자를 이유로 시작된 영국의 대대적 민영화 정책과 그 뒤를 이은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 남미를 실험장의 필두로 전 세계에 펼쳐진 각종 공공재의 민영화 바람!

우리는 최근 한국으로 넘어온 이 민영화 바람의 실체를 보기 위해 민영화가 이루어진 1세대 국가들을 직접 탐방했다.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의 철도, 칠레의 연금과 교육, 아르헨티나의 발전과 철도, 일본의 철도, 프랑스의 물, 독일의 전력까지...

미리 가 본 민영화의 미래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공동체 상영 신청 : <http://blackdeal.kr/>

